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김상숙¹ · 김수진²

천주의 성 요한병원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²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A Parse's Research Method Study

Kim, Sang Sook¹ · Kim, Soo Jin²

¹Department of Nursing Service, Saint John of God Hospital, Gwangju
²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use Parse's research method to discover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s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Method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Parse's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were 7 women who had attempted suicide and who were hospitalized in a Mental Hospital and in the Suicide-Prevention Center of G City. Data were collected by dialogical engagement between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er from November, 2011 to February, 2013, and were analyzed through the extraction-synthesis and heuristic interpretation processes. **Results:** Through the analyses, the structure was identified;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is the process that they ultimately found new meaning and value of life by speaking out their concealed pain through the intimate human contact with other people, although the women once decided to commit suicide to escape from extreme agony. **Conclusion:**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erefore, that the nurses working in this field should try wholeheartedly to understand the suffering and agony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and to provide practical nursing to help them revitalize their lives.

Key Words: Attempted suicide, Women, Psychological stress,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통은 인간 삶의 필연적인 요소이며 가장 깊은 부분에 놓여있어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또한 고통은 삶에서의 상실이나 위협이 나타날 때, 건강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과 우주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는 극심한 괴로움을 말한다[2]. 수많은 부정적 경험들이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다가올 때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3]. 통계청 자료[4]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5,56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1.2명이 자살하여 10년 전과

주요어: 자살시도, 여성, 고통,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Kim, Soo Ji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ckseo-ro, Dong-gu, Gwangju 501-840, Korea.
Tel: +82-62-530-4951, Fax: +82-62-227-4009, E-mail: pinehillkim@naver.com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 19, 2014 | Revised: Sep 26, 2014 | Accepted: Sep 26,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비교했을 때 5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OECD국가 중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자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3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자살시도는 죽을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자살시도자는 실제 자살한 사람보다 10~20배 이상 추정되며, 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사람은 추후 더 준비하여 완벽한 자살 시도를 행함으로써 미래에 더 높은 자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된다[5]. 최근 여성 자살이 증가 추세이고, 여성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는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6], 이는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자살시도 여성에 대한 간호실무적 관심을 더욱 증가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자살시도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더 이상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살시도 여성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치유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7]. Kong[7]에 따르면, 간호 실무에서 고통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제거해야 할 대상 그 자체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전체적인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신체적 상태로서 이해해야 하며, 자살시도자를 질병 명을 가진 우울증 환자가기 전에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자살시도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살에 대한 역학 조사나 자살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연구[6,8-10]가 많았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여성학적인 심층분석 연구[11]와 여성의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12,13]에서 거절, 놀림, 소외, 대처기술의 부족, 혼란, 트라우마, 절망, 무력감, 두려움과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의 고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14]에서는 자살시도자의 고통의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인간관계의 네 가지 실존체를 중심으로 열세가지의 주요 주제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살시도자들의 경험의 핵심에는 심리적 고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살시도자들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심층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으나, 그들의 고통 체험을 어떻게 재구성

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자살시도자들은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인간으로서 지지하고 존경해주기를 기대하며 [12],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느낌과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13]. Kong[15]에 따르면, 고통 받는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간호사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통의 현상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살시도 여성의 생생한 고통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고통이 삶 자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Parse[16]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르면, 고통은 미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개개인의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오랜 기간의 정신간호실무 경험을 통하여, 인간과 우주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선택적인 인간되어감의 방법으로,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이 생생한 고통 체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 순간 개인의 건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자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Parse의 이론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Parse의 연구방법[17,18]은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과정을 통하여 상실, 불안, 고통 등 건강과 삶의 질에 연관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체험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로 하여금 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소중한 일상생활의 패턴, 희망과 꿈 등이 뒤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실제로 부딪히며 겪게 되는 삶의 체험의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Parse의 연구방법은 참여자들이 서술하는 고통 체험의 본질을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접근 방법이며,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의 세 과정이 포함 된다[17,18].

2.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자살시도 후 생존하여 G시 소재 일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중 치료 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6명과 G자살예방센터의 사례관리자를 통해 의뢰 받은 1명, 총 7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연령은 32세에서 62세 사이이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2명, 미혼이 1명, 이혼이 2명, 사별이 2명이었다. 4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3명이 가정주부였으며, 혼자 사는 경우가 3명이었다. 7명 모두 우울증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우울증 가족력이 확인된 경우는 3명이었다. 7명 중 자살시도 과거력이 있는 참여자는 3명이었다. 자살시도 방법은 음독 3명, 목매 1명, 익사 1명, 투신 2명이었다.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시작 전에 G시 일 정신병원의 ‘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2011-4),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소속된 직장, 연락처, 연구방법,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혜택을 알려준 다음에 문서화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과정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병원의 개인상담실, 참여자의 집, 카페 등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고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가능한 한 고통 체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하였다. “그 부분에 대해 더 말해 줄 수 있나요?”, “자살시도와 고통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등과 같은 말을 사용하며 주의 깊게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갔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경험을 언어화하는 바로 그 과정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경험

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체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도록 요청하였다. ‘너와 나의 대화’ 과정은 1회에서 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1회 시간은 30분에서 16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개인별 총 시간은 100분에서 180분이었다. 고통 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rse의 연구방법[17,18]의 자료분석 과정을 따랐다.

1)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 과정

‘너와 나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녹음된 고통 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워드프로세스에 직접 기록한 다음, 녹음된 내용을 다시 원 자료와 비교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이야기(story)’내용에서 고통 체험과 관련 있는 자료에 밑줄을 긋고, 대화의 내용에 몰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였다. ‘추출-종합’ 과정은 첫째, ‘참여자의 언어(participant's language)’에서 고통 체험의 핵심 사상을 추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연구자의 언어(researcher's language)’로 종합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된 내용에서 미학적 진술인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들었다. ‘언어-예술’은 ‘연구자의 언어’ 내용에 있는 핵심 사상을 종합하는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된 미학적인 진술이다. 셋째, 7명 참여자의 종합적 ‘언어-예술’에서 3개의 ‘핵심 개념(core concepts)’을 추출하였다. ‘핵심 개념’은 모든 참여자의 ‘언어-예술’의 중심 의미를 포함하여 글로 쓰여진 것이다. 넷째, 추출된 3개의 ‘핵심 개념’을 고통 체험의 ‘구조(structure)’로 종합하였다. ‘구조’는 핵심 개념을 종합하는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된 진술이며, 위의 과정을 통하여 진화된 ‘구조’가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2)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과정

이 과정은 체험의 구조를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과정으로,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position)’과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s)’ 및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적 전환’에서는 고통 체험의 ‘구조’를 더 높은 수준의 추상성으로 전환시키고, ‘개념적 통합’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통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

였다. ‘은유적 드러남’은 고통 체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그림 혹은 짧은 글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적인 언어를 기술하였다. ‘예술적 표현’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시, 조각품, 그림, 음악, 은유, 활동, 사진, 비디오/오디오 기록 그리고 다른 예술적 형태를 이용한 연구자의 표현이다[18]. 본 연구자는 고통 체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류시화[19]의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중에서 ‘자살’이라는 시를 선택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Padgett[20]이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심층면담, 참여관찰, 국내외 단행본이나 영화, 언론자료, 자작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통하여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이나 왜곡을 극복하여 편향성을 배제 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진실 되고 타당하게 추출-종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자 5명에게 자신의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체험과 일치하는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을 통하여 가능한 한 참여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힘썼다. 넷째,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가 해석한 것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기법(peer group valid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 Parse의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정신간호학 교수 3인에게 참여자의 진실과 연구자의 추출-종합 과정, 언어-예술 및 핵심 개념 도출이 제대로 기술되었는지, 일관성 있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받은 후 수정·보완 하였다. 다섯째,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 상황, 연구 방법론적인 기록, 자료분석 절차, 그리고 개인적 반응에 대한 현장기록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5. 연구자의 배경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요한 자료수집 도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현상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직관력, 추리력, 끈질긴 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실제 현장경험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로서 정신의료기관에

서 수년간 근무를 해왔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향상 훈련, 인간성 잠재력 개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입원한 우울증 환자와 자살시도자를 위한 개인 상담과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만의 심정, 의도, 바람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면서 Parse 인간되어감 이론에서 제시한 ‘진정으로 함께 함’의 간호접근방법이 적절함을 실감하였다. 또한 박사학위 중 질적 연구를 수강하면서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을 적용한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질적 연구 워크숍과 Parse 인간되어감 국제 학술 세미나 및 자살예방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러한 실무경험들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결과

1. 추출-종합 과정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세 가지 원리, 즉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가는지, 인간-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울동적인 관계패턴을 공동창조 하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초월 해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사례 ‘현’의 추출-종합 과정을 제시하였다.

1) ‘현’의 이야기

‘현’(34세)은 4남매가 있으나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댄스 강사를 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유일하게 위로를 받고 있는 교회 내에서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음독 자살을 시도한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녀는 고통을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아픔’, ‘죽음보다 더 큰 외로움’, ‘눈 뜨는 것이 저주’, ‘울 수도 없는 답답함’, ‘성숙시키는 것’, ‘떡구름이 걷힌 후 나타나는 무지개’로 묘사한다.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 킁킁한 방에 항상 혼자 들어가고... 잠자고 있으면 부모님 돌아오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아빠가 입버릇처럼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식... 너는 왜 죽지도 않냐!’... 아빠와 그런 관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눈물). 솔직히 아빠가 잠들 때 조용히 죽이고 싶은 마

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남편이 게임 중독이었어요... 폭력적이어서... 결국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교회관계자와 불륜의 관계라는 헛소문이 도니까... 속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힘들고 분노감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사직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큰 저주였어요. 항상 머리 속에서 죽고 싶다 하는 거예요... 고층아파트만 봐도 떨어지는 기분이 몸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이대로 사고가 나면 좋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돼! 안돼!.. 치열하게 싸움을... 그런 생각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내가... 결국에는 우울증 약을 모두 먹어 버린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어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스스로를 망쳤구나...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주위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가 '이러세요 저러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와서 근황을 물어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었던 것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했었다면 지금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늘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죽으면 울 수 있을까? 생각 했는데(눈물)... 이 기회를 통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병원에 입원한 것도, 우울증이라는 것도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 중의 하나였지만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주니까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삶의 긍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줘요. 먼저 오라고 해주었거든요. 아, 누군가에게 손을 뻗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해주어도... 점점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닫게 되고... 정작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빼놓고 농담이나 하면서... 혼자 끙끙 앓기만 하고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그냥 가슴에 뭐가 하나 딱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찾아와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잘 살았구나 생각도

들고 용기가 생긴 것 같고 감사해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입원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최고 밑바닥이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나를 일어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정의 기복이 있고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은 안되요. 때로는 약으로 기분을 조절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이 들라고 하면 일부러 노력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기뻐지는 삶을 살고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 지금의 나로 살지 말자... 이 과정을 지나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커지고 생각과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의 아픈 과정도.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그나마 있는 재능이 감사하죠(미소).

2) '현'의 언어 추출

- 어렸을 때 부모와 이야기할 시간 없이 혼자 지내고 '쓸모 없는 자식', '왜 죽지도 않느냐'라는 아빠의 독설을 들으며 방황하였다.
- 게임중독이고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한 후 교회 관계자와 불륜의 관계라는 헛소문으로 사직을 하고나자 공허감, 분노감, 외로움과 항상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지옥 같은 하루에서 탈출하려는 치열한 싸움 끝에 자살을 시도하였다.
- 정신병원 입원을 하면서 자괴감을 가졌으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조용히 근황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간호사로 인해 죽으려는 마음이 바뀌었다.
- 아버지와 화해하고, 힘든 것을 알아주는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마음을 닫고 지냈으나 담아둔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닫힌 마음이 풀렸다.
-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니 정신병원 입원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겨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극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연구자의 언어 종합

- 아버지의 독설로 존재가치가 위협받는 심리적 상처를 안고 성장하면서 자존감이 박탈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함.
-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과 반복된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함.
-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자기 소외되어 지냈으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의미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김.
- 대화를 통해 억압된 심경을 토로하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됨.
- 새롭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긍정적인 어머니상이 되고자 노력함.

4) ‘현’의 언어-예술

‘현’의 고통 체험은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심리적 상처와 반복된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의미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억압된 심경을 토로하면서, 새롭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어머니상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5) 7명 참여자의 종합적 언어-예술

현(34): ‘현’의 고통 체험은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심리적 상처와 반복된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의미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억압된 심경을 토로하면서, 새롭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어머니상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다.

정(51): ‘정’의 고통 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버거움과 의미 있는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극도의 괴로움에 휩싸이면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안전한 환경에서 전인적인 돌봄을 주는 간호사에게 감춰진 심경을 드러내면서 안정을 찾고, 신의 섭리에 의탁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민(37): ‘민’의 고통 체험은 버려짐으로 인한 반복된 심리적 상처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버거움에서 오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함께 하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로 감춰진 심경을 은밀히 드러내면서, 새롭게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과 돌봄으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박(62): ‘박’의 고통 체험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삶의 버거움에서 오는 괴로움을 단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지지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감춰진 심경을 토로하면서 희망을 찾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과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는 과정이다.

진(31): ‘진’의 고통 체험은 성장 과정에서 단절되고 위협받은 경험이 버거운 삶의 과정에서 재생산되어 끝없이 느껴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했으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억압된 심경을 토로하면서, 고통의 의미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윤(51): ‘윤’의 고통 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의미 있는 사람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죽음으로 단절하려 했으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감춰진 심경을 토로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와 봉사의 삶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선(50): ‘선’의 고통 체험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결여로 존재를 위협 받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으나, 안전한 환경과 지지자와의 연결을 통해 표현을 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6) 핵심 개념 및 구조

7명 참여자의 언어-예술에서 도출된 고통 체험에 대한 핵심 개념은 첫 번째,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함’, 두 번째,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감춰진 심경을 토로함’, 세 번째,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감’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구조는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은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였으나,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감춰진 심경을 토로하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서술하였다(Table 1).

2. 핵심 개념의 발견적 해석

1) 구조적 전환과 개념적 통합

고통 체험의 구조를 전환시키면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은 삶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으나, 믿음의 유대를 통하여 자신을 은밀히 드러내면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된 구조를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으로 통합할 때, ‘자살시도 여성의 고

통 체험은 자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가치(valuing)가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 과정을 통해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강화되어(powering)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가는 경험이다'로 재해석되었다(Table 1).

2) 은유적 드러남

본 연구에서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참여자들의 시나 그림 혹은 짧은 글을 통해 표현된 세 가지 은유적 드러남은 “심장이 바늘에 찔리어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아픔”, “지옥불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없는 외침”, “견잡을 수 없이 몰아치지만 결국 지나가는 바람”이었다(Table 1).

3) 예술적 표현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예술적 표현으로 연구자는 류시화[19]의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중에서 시 ‘자살’을 선택하여 고통 체험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Table 1).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들 때가 있었다
때로 저무는 시간을 바라보고 앉아
자살을 꿈꾸곤 했다
한때는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내가 남을 버리는 것보다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무가 흙 위에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 앞에
한 그루 나무처럼 서 있다

논 의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대한 3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과 이론적 수준에서의 개념적 통합, 은유적 드러남 및 예술적 표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세 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과 이론적 수준에서의 개념적 통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첫 번째 핵심 개념인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함’에서 ‘극도의 괴로움’이란 참여자들이 고통 체험을 묘사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삶의 과정에서 더할 수 없이 심한 정도의 고통’이라는 견해가 담겨있다. 이는 자살시도자들이 체험한 고통의 핵심으로써, 반복되는 상처의 고통, 응어리진 분노, 혐오스런 나로 확인되었다는 자살시도자의 고통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결과[14]가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 여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싸우고 있었는데, 고통에 대해 “저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픔”, “살았는데 지옥불 속에 있는 것”, “내 심장이 재봉틀 바늘에 찔리는 느낌”,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온 몸이 찢겨져 나가는”, “올가미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파도 속에 갇혀서 숨을 못 쉬고 답답한 느낌”, “끝이 없는 막막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체념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고통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혹은 이성 친구나 동거남 등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상황이 많았다. 그 외 남편의 사별과 이혼, 가까운 사람의 자살과 죽음이 포함된 여러 상황에서의 상실과 관련되었고, 경제적인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통 체험을 묘사할 때 성장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는 과거의 고통이 그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각인되어 있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의 총체적 삶의 태도에 위협적인 요소로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자해를 시도한 시춘기 여성의 생존 경험에 관한 Lesniak[21]의 서술적 사례 연구에서 어린 시절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사는 것,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이 내적 고통의 본질로 밝혀져 과거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상황들이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으로 축적되어 오는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을 ‘삶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삶보다 죽음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견해를 담는다. 예를 들면,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눈을 뜨는 것이 저주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버림받고 밀려난 느낌이 들었어요, 버티다가 숨이 목까지 차서 더 이상 쉬기가 힘들어질 때면 아! 차라리 죽어버려야 싶어서 제초제를...”. 이처럼 대부분 참여자들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상황과 싸우는데 지쳐 있었을 때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살기 위한 하나의 행

Table 1. Heuristic Interpretation of the Core Concepts

Core Concepts	Structural Transposition	Conceptual Integration
Choice of suicide to escape from extreme agony	Finding the last hope of life	Valuing
Speaking out the concealed painful feeling through the human contact	Confidentially revealing themselves through the intimate contact with other people	Connecting-separating Revealing-concealing
Assigning new meaning and value to their life	Regaining their self	Powering
Structure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is the process that they ultimately found new meaning and value of life by speaking out their concealed pain through the intimate human contact with other people, although the women once decided to commit suicide to escape from extreme agony.		
Structural Transposition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is the process in which they find the last hope of life and regain their self, confidentially revealing themselves through the intimate contact with other people.		
Conceptual Integration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women who have attempted suicide is powering of valuing, connectingseparating, and revealing-concealing.		
Metaphorical Emergings		
"the pain felt in stitching a torn heart", "silent screaming in the fire and brimstone", "the storm raging but passing soon"		
Artistic Expression		

'Suicide'
 There was a time
 blinking eyes and even breathing were hard
 I used to dream suicide
 watching falling hours
 I once thought it would be less hard
 to abandon myself than to abandon others
 I wanted to fall
 as a tree falls down on the ground
 But I am
 still standing in front of you
 like a tree

quoted from "Love of One-eyed Fish" by Ryu Shi-Hwa (1996)

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론적 수준에서, 첫 번째 핵심 개념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인 '가치화'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인 '가치화'는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 더 가치를 두고, 동시에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가

치 틀에 통합되는데, 이는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원칙과 사고의 모체가 된다[23]. 이와 같이 첫 번째 핵심 개념은 간호 실무에서 자살을 하나의 이론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써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감춰진 심경을 토로함’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의 연결 또는 결합을 통하여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토로하면서 참여자들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주니까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삶의 긍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살았어요.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고... 진심으로 품어주고 배려를 해주는구나...”, “믿고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관심을 주는 그런 보살핌...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사람이 터놓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라는 참여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Gilligan[24]은 목소리 상실로서의 여성의 자살시도는 바로 인간관계의 상실이고, 선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삶 전반에 걸친 상실이라고 하였다. 특히 관계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여성에게 이야기하기는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Choi[25]에 따르면,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살의도를 대부분 타인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Charlotte Rainbow PRISM (Presence, Respect, Information, Services, Movement) Model’ [26]을 적용하여 참여자들과 진정으로 함께함(true presence)의 간호접근을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함께 함(Presence), 판단하지 않고 존중함(Respect), 참여자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Information/Services) 그리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변화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지지(Movement) 하였다. 이러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참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침묵 속에 감추어두었던 고통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조망하여 정리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을 ‘믿음의 유대를 통하여 자신을 은밀히 드러냄’으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살을 시도한 상황에서 지쳐있고 외로우며 절망감에 쌓여 있었다. 자살시도에서 위기를 넘긴 이후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살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다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개방적이고 믿음의 관계로 침묵 속에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론적 수준에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두 번째 원리인 ‘노출-은폐’와 ‘연결-분리’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출-은폐’는 동시에 ‘열려있는-닫혀있는’ 것이다[18].

참여자들이 고통 체험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심경을 은밀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와 의미 있는 사람과의 믿음을 통하여 감추어진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연결-분리’는 타인과 생각, 사물, 상황과 함께 있으며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18]. 참여자들은 고통을 견뎌내는데 있어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 혹은 상황, 즉 가족, 이웃, 간호사, 연구자, 절대자 그리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센터나 병원의 치료적인 환경에 대해 감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연결됨과 동시에 부정적 감정, 성장과정에서의 상처, 인간관계 갈등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경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Joiner[27]의 자살예방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써 ‘인간적인 접촉’이 작용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발견하였다. 본 연구참여자 모두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관심과 위안을 주고 배려해주는 인간적인 접촉을 통하여 삶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혹은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자살시도 여성의 이야기를 지속시켜주고 함께 재구성하는 간호사가 진정으로 함께할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데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세 번째 핵심 개념인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감’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이동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고통은 극단적인 번민 속에서도 존재양식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주는 통찰력이 존재 한다’는 Daly[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많은 참여자들은 과거 부모의 무관심과 정서적 학대, 빈곤한 어린 시절,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생, 어린 시절의 회생적 생활 등으로 인해 소중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분노감, 적대감, 공허감, 좌절감, 상실감, 무력감, 슬픔, 무가치감, 배신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솔직히 아빠가 잠들 때 조용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오죽하면 엄마에게 나를 뭐 하러 낳아줬소”,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와 같이 성장과정에서 존재의 가치를 위협받은 참여자들이 고통 체험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갔다. 이는 참여자들이 언급한 “이 과정을 지나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고

생각과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고통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통은 나를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힘이 들지만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신다고 하잖아요?”, “시련을 주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통해서 행복도 알아가요”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경험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여기거나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살시도 후 위기의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이해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기를 거쳤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면서도 “그렇지만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였다. Cooper, Kapur와 Webb[28]의 연구에서 ‘선행된 자살행동은 그 다음 이어질 반복 자살행동의 가장 유력한 예측 가능한 지표’ 언급 하였듯이 자살시도 후 살아남은 자는 이후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관리가 필요하다. Mann, Apter와 Bertolote[29]의 연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우울증 환자에게 병원 치료 후 정기적인 우편물 발송, 전화 상담을 통한 추후 관리, 자살중재 상담원을 활용한 ‘Chain-of-Care’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추적조사를 한 결과, 프로그램을 받은 지역이 치료 탈락율과 반복 자살시도율도 더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에게 이와 유사하게 전화나 문자 연락, 외래 내원을 통한 짧은 만남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재시도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긴다.

이론적 수준에서,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세 번째 원리인 ‘강화성’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화성’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갈등을 통하여 인간이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힘을 얻을 때,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난다[16].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표현하였다. 이는 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에게 마음 안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추진-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참여자들과 ‘진정으로 함께 함’의 간호 접근을 통해 고통은 회피되어야 할 부정적 가치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통 체험의 의미를 한층 더 부각시켜주도록 참여자들의 시나 그림 등으로 나타난 세 가지 ‘은유적 드러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은유적 드러남으로 “심장이 바늘에 찔리어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아픔”, “지옥불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없는 외침”, “견잡을 수 없이 몰아치지만 결국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세 가지 ‘은유적 드러남’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언어로 표현된 첫 번째 은유적 드러남으로 “심장이 바늘에 찔리어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아픔”은 극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가치화’를 나타낸다. 이는 자신의 세계관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대하여 ‘순응-불순응’하는 것이며, ‘상상화’된 다차원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16]. 두 번째 은유적 드러남인 “지옥불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없는 외침”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살시도 여성은 누군가와 혹은 상황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외롭게 지옥불 속에 떨어져 있고,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경험을 동시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시도의 고통을 겪는 여성은 ‘노출-은폐’하면서, ‘연결-분리’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은유적 드러남으로 “견잡을 수 없이 몰아치지만 결국 지나가는 바람”은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개인이 초월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서 경험하는 긴장과 갈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데, 새로운 가능성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동시에 타인, 욕망, 희망 등과 연결되는 ‘추진-저항’ 사이의 투쟁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들은 인간되어감의 역설적인 리듬이다 [16]. 이와 같이,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관한 ‘너와 나의 대화’에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고통 체험의 의미에 대한 은유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인간되어감의 존재론에 비추어 그것들을 개념화하는 것은 인간 체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자살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예술적 표현으로 류시화의 ‘자살’이라는 시[19]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작가의 삶이 모진 상처와 허무를 넘어선 경이로움이 있고 자기참회와 깊은 사색을 통한 세상의 지혜가 고스란히 시구에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자살’은 작가의 고백과 묘사의 정점에 고통의 미학이 드러나 보인다. “눈을 깜빡이는 것마저 숨을 쉬는 것마저 힘들어 자살을 꿈꾸곤 했다”는 시인의 표현은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가치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나무가 흙 위에 쓰러지듯 그렇게 쓰

러지고 싶었다”의 시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놓아버릴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시인의 감정을 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누구나 삶이 고달프고 지칠 때가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나무라는 대상은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간호사는 나무처럼 등에 기대어 위로를 줄 수 있고 품을 열어 하늘을 보여 주고, 몸이 아플 때는 새들을 불러 울어주며, 비를 가려주는 위로와 보호의 대상이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또한 나무는 나무 외에 자연의 다른 대상과 연결되기도 하고 버림의 의미를 알게 해주어 집착하지 않는 삶을 배워가는 것. 즉 집착에서의 해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인간적인 접촉’과 ‘믿음의 유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당신 앞에 한그루 나무처럼 서 있다”의 시구는 삶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중한 이에게 한그루 나무로 존재하고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감’과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에서 나온 개념인 ‘강화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Parse의 연구방법 맥락 내에서 자살 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을 상세히 설명해주기 위하여 연구자에 의해 선택된 ‘예술적 표현’은 인간되어감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실무에서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을 적용하여 자살 시도자의 고통 체험을 건강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또 다른 삶의 역경에 처한 다양한 대상자들의 고통 체험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7명 자살 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고통 체험의 구조는 자살 시도 여성이 어떻게 고통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가는지, 인간-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율동적인 관계패턴을 공동창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가능성을 가진 채 공동초월 해 가는지를 제시해주어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지지하였다. 간호 실무에서 정신간호사는 자살 시도 여성의 고통 체험을 인간되어감의 과정인 건강 경험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함께 하는 간호가 요구되어진다.

REFERENCES

- Gadamer HG. Schmerz-Einschätzungen aus medizinischer, philosophischer und therapeutischer Sicht. Gong BH, Translator. Seoul: Chulhak & Hyunsilsa; 2005. 105 p.
- Pilkington FB, Kilpatrick D. The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a Parse research method study. *Nurs Sci Q*, 2008;21(3):228-37.
- Winnicott D. Deprivation and delinquency. Lee JH, Translator. Seoul: Korean Psychotherapy Research Institute; 2001. 396 p.
- Korean Statistical Office. Cause of death statistics result [Internet]. Seoul: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1 Mar 26 [cited 2014 Mar 28];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Motz A. Self-harm as a sign of hope.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2010;24(2):81-92. <http://dx.doi.org/10.1080/02668731003707527>
- Kim YT, Kim IS, Ju YS, Lee JY.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222 p.
- Kong BH. Das verstehen des schmerzes in einem klinischen bereich. *J Human Stud*, 2005;8:242-59.
- Kahng SK.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Korean J Soc Welfare Stud*, 2010;41(2):67-99.
- Mo JH, Bae JH.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Health Soc Aff*, 2011;31(2):121-45.
- Kaslow NJ, Jacobs CH, Young SL, Cook S. Suicidal behavior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woman: a comparison of first-time and repeat suicide attempters. *J Black Psychol*, 2006;32(3):349-65.
- Han JH. A study on cause of women depression related to suicide: focusing on women in 20's. [master's thesis]. [Seoul]: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0.
- Dougherty PA. Lived experience: near-fatal adolescent suicide attempt. [dissertation].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2010. 165 p.
- Tzeng WC. After a suicide attempt in Taiwan: an ethnographic study. [dissertation]. [San Francisco]: University of California; 2002. 175 p.
- Ko MH, Lee MO, Yi M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 experience of sufferings in suicide attempt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3;22(4):339-48.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4.339>
- Kong BH. Nursing practice and caring attitude from the aspect of virtue ethics. *Bumhan Philos*, 2004;34:83-108.
- Parse RR.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2nd ed. Lee OJ, Lee JS, Go MS, No CH, Translator. Seoul: Hyunmoon-

- sa; c2002. 170 p.
17. Parse RR.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emerging sciencing. *Nurs Sci Q*. 2005;18(4):297-300.
<http://dx.doi.org/10.1177/0894318405380394>
 18. Parse RR.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refinements. *Nurs Sci Q*, 2011;24(1):11-5.
<http://dx.doi.org/10.1177/0894318410389066>
 19. Ryh SH. *Love of one-eyed fish*. Seoul: Yolimwon; 1996. 110 p.
 20. Padget D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Yu TG, Translator. Paju: Nanam; c2001. 280 p.
 21. Lesniak RG. The lived experience of adolescent females who self-injure by cutting. *Adv Emerg Nurs J*, 2010;32(2):137-47.
<http://dx.doi.org/10.1097/TME.0b013e3181da3f2f>
 22. Quinnett PG. *Suicide: the forever decision*. Lee HS, Yuk SP, Translator. Seoul: Hakjisa; c2006. 246 p.
 23. Parse RR. *Illuminations: the human becoming theory in practice and research*. Lee OJ, Lee JS, Go MS, No CH, Translator. Seoul: Hyunmoonsa; c2000. 321 p.
 24. Gilligan C. *In a different voice*. Her RJ, Translator. Seoul: Dongnyok; c1997. 322 p.
 25. Choi SJ. *Korean psychology*. Seoul: Hakjisa; 2011. 333 p.
 26. Parse RR. *Community: a human becoming perspective*. Lee OJ, Lee JS, Go MS, Translator. Seoul: Hyunmoonsa; c2007. 222 p.
 27. Joiner T. *Myths about suicide*. Ji LW, Translator. Seoul: Basicbooks; c2011. 414 p.
 28. Cooper J, Kapur N, Webb R. *Suicide after deliberate self-harm: a 4-year cohort study*. *Am J Psychiatry*. 2005;162(2):297-303.
 29. Mann II, Apter A, Bertolote J.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 systemic review*. *ZAMA*. 2005;294(16):2064-74.